

IT수출 130억달러대 지속

8월 IT수출이 세계 시장 성장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13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IT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70억 달러 대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수지 흑자를 견인하였다. 세계 IT시장 성장률 전망은 ('09) $\Delta 0.6\% \rightarrow$ ('10.상반기) $3.7\% \rightarrow$ (하반기) 3.8% 이다.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64.9% 증가한 47.4억 달러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규 제품과 하반기 기업용 PC 교체 수요 확대로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IT수출을 견인하였고, 디스플레이 패널(부분품 포함, 32.0억 달러, 25.4% 증가)은 계절적 성수기 도래와 중국 가전 보조금 정책 확대(7월 말)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휴대폰(부분품 포함, 18.6억 달러, $\Delta 18.4\%$ 감소)은 단가 하락과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일반폰 수출 감소로 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은 5.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6%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0년		2009년		
	8월	1~8월	8월	1~8월	
수출	전체 산업	375.3 (29.6)	2,998.2 (32.9)	289.5 ($\Delta 20.9$)	2,256.4 ($\Delta 22.6$)
	IT 산업	134.0 (26.5)	998.8 (34.8)	105.9 ($\Delta 7.7$)	740.8 ($\Delta 19.4$)
수입	전체 산업	354.5 (29.3)	2,749.0 (37.1)	274.1 ($\Delta 32.2$)	2,004.8 ($\Delta 34.1$)
	IT 산업	63.8 (16.5)	483.6 (23.0)	54.7 ($\Delta 13.0$)	393.3 ($\Delta 23.7$)
무역수지	전체 산업	20.8	249.2	15.4	251.6
	IT 산업	70.3	515.2	51.2	347.5

2분기 글로벌 IT시장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IT품목의 선전은 지속되었

다. 주력 IT품목은 글로벌 경쟁 심화,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1~2위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최근 수출을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세계 1위)는 '05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50% 점유율에 진입하였고, LCD패널(세계 1위)은 대만, 일본 업체와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50%대 점유율 유지하였다.

그리고, 휴대폰은 최근 수출 부진과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일반 단말 업체의 점유율 하락과 달리 30%대(세계 2위)의 세계 시장 점유율 유지하는 등 선전하였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변화('09.2Q \rightarrow '10.2Q)은 노키아 \downarrow (37.8% \rightarrow 35.8%), 소니에릭슨 \downarrow (5.1% \rightarrow 3.5%), LG전자 \downarrow (10.9% \rightarrow 9.9%), 삼성전자 \uparrow (19.1% \rightarrow 20.5%)이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62.6억 달러, 33.9%증가), EU(17.1억 달러, 30.5%증가), 미국(14.7억 달러, 13.0%증가), 일본(6.7억 달러, 12.8%증가) 등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IT수출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ASEAN(11.5억 달러, 17.6%증가), 중남미(6.7억 달러, 5.0% 증가), 동유럽(11.3억 달러, 51.6% 증가), 중동(2.8억 달러, 21.1% 증가)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호조세

【 '10년 8월 IT산업 주요 국가 / 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47.4	(64.9)	32.0	(25.4)	18.6	($\Delta 18.4$)	134.0	(26.5)
중국(홍콩포함)	25.8	(89.0)	19.3	(26.2)	4.5	($\Delta 43.4$)	62.6	(33.9)
미국	3.4	(47.4)	0.6	(0.4)	6.4	($\Delta 5.7$)	14.7	(13.0)
일본	3.4	(26.0)	0.9	(16.1)	0.5	($\Delta 27.2$)	6.7	(12.8)
EU	3.4	(89.7)	6.5	(54.1)	2.6	($\Delta 13.0$)	17.1	(30.5)

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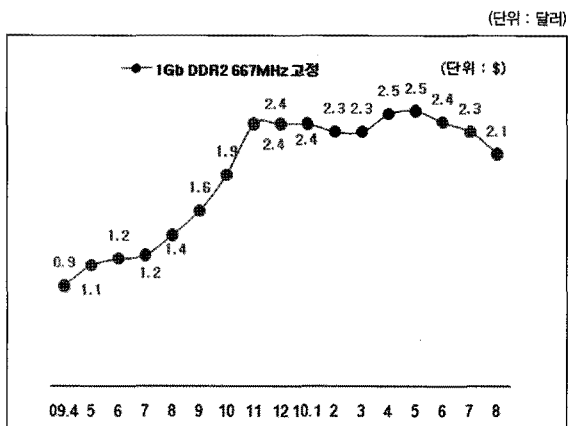
한편, IT 수입(63.8억 달러, 16.5% 증가)은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에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한 3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넷북, 스마트폰 수입 확대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 달러, 36.3% 증가)와 무선통신기기(3.7억 달러, 19.4% 증가)는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그간 수출을 주도한 반도체, 패널의 글로벌 경쟁심화 및 재고 확대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다소 예상되나, 중국 국경질, 추수감사절 등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 부진한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라인업의 대폭 보강이 예상되는 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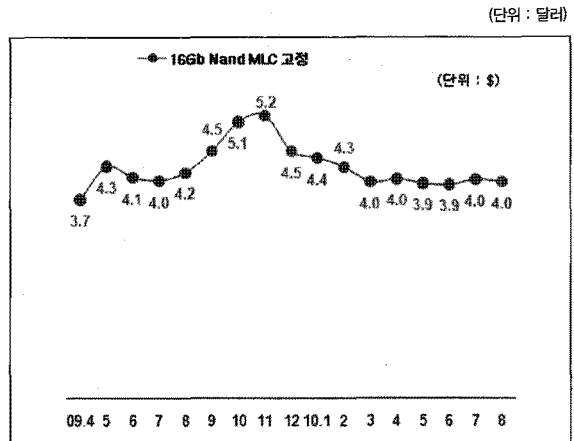
반도체 : 47.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64.9%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호조로 지난 달 4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 재경신하였다. D램은 업체 간 출하 경쟁 심화와 재고 확대로 단가가 다

【 D램 가격 동향 】



【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 】



소 하락하였으나, Back to school 수요 및 기업용 PC 수요와 국내 업체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117.0% 증가한 18.8억 달러이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고용량 NAND 탑재 스마트폰 출하 증가와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 신규 수요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26.9% 증가한 2.5억 달러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5.8억 달러, 89.0%), 미국(3.4억 달러, 47.4%), 일본(3.4억 달러, 26.0%), EU(3.4억 달러, 89.7%) 등 주요 국가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패널(부분품 포함): 32.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5.4% 증가

패널 수출은 중국, EU 수출 확대로 2개월 연속 30억 달러 대 수출하였다. 패널은 유럽 재정 위기와 TV, PC용 패널의 재고 확대로 단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호조세를 유지한 것이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10.3)340 → (4)335 → (5)335 → (6)328 → (7)323 →

(8)300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6.2%), 브라질(18.4%), 폴란드(21.9%) 등 주요 생산 거점 수출은 증가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동기)대비)

구분	'09.8	9	10	11	12	10.1	2	3	4	5	6	7	8
금액	25.5	26.3	26.6	24.9	26.3	24.6	23.3	28.4	28.4	29.1	28.8	32.0	32.0
증감률	(7.8)	(4.1)	(10.3)	(34.9)	(113.7)	(99.5)	(55.8)	(46.0)	(40.2)	(37.5)	(28.2)	(27.7)	(25.4)

휴대폰(부분품 포함):18.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8.4% 감소

휴대폰 수출은 수출 단가 하락과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일반폰 수출 부진으로 5개월 연속 10억 달러 대 수출되었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일반폰 업체의 단가 하락이 심화되었다. 휴대폰 수출 단가 하락은 국내 업체의 일반폰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스마트폰 수출 비중 증가로 단가 감소율이 완화되었다. 휴대폰 수출 단가 추이(전월 대비, %)는 (10.4) △20.3 → (5) △17.9 → (6) △16.7 → (7) △14.9이다.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글로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확대로 일반폰 수출 부진이 휴대폰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10.8월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의 수출 증감액(전년동월대비) 비교로 보면, 스마트폰은 4.3억 달러 ↑, 일반폰은 6.2억 달러 ↓이다.

국내 업체는 '10.6월 이후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시했으며,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보강되는 4분기에는 스마트폰이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이 본격 출시된 6월 ~ 8월 스마트폰 수출(8.9억 달러)은 이전 5개월(1월 ~ 5월) 수출액

(10.8억 달러)을 크게 상회한다. 국내 업체는 4분기에 경쟁력있고 다양한 스마트폰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므로 4분기 이후 스마트폰이 휴대폰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연간 40여종의 다양한 스마트폰을 생산할 계획이며, LG전자도 윈도우폰7 포함 20종 이상의 스마트폰을 출시, 4분기 이후 본격적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미국(6.4억 달러, △5.7%), EU(2.6억 달러, △13.0%), 일본(0.5억 달러, △27.2%) 등 주요 수출국가 수출이 부진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4.5억 달러, △43.4%)은 부분품(4.4억 달러, △36.8%)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칼라TV(부분품 포함):7.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8.0%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LED TV 시장 확산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최근 TV업체 간 경쟁 심화로 TV 가격은 하락세이나, 국내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것이다.

LCD TV가격(42인치, \$)은('10.2) 957 → (3) 919 → (4) 1,046 → (5) 960 → (6) 993 → (7) 960 → (8) 939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74.6%), 멕시코(60.7%), 폴란드(22.1%), 헝가리(71.5%), 인도(56.5%) 등 생산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되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홍콩 포함)으로 62.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9% 증가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반도체(25.8억 달러, 89.0%), 패널(19.3억 달러, 26.2%), TV부분품

【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8	9	10	11	12	'10.1	2	3	4	5	6	7	8
칼라TV 부분품 포함	4.4 (Δ8.8)	5.4 (Δ2.6)	4.9 (10.0)	4.6 (100.0)	5.1 (144.6)	5.4 (91.0)	5.1 (51.0)	6.4 (47.5)	6.9 (44.3)	6.6 (68.6)	6.5 (58.8)	7.0 (56.1)	7.0 (58.0)
LCD TV	0.4 (Δ20.9)	0.5 (Δ12.5)	0.6 (28.6)	0.6 (37.2)	0.6 (94.3)	0.5 (77.6)	0.3 (7.4)	0.5 (13.8)	0.5 (36.6)	0.6 (14.7)	0.8 (46.6)	0.6 (27.3)	0.5 (47.2)
PDP TV	0.2 (Δ10.3)	0.2 (Δ29.4)	0.2 (Δ23.7)	0.2 (43.0)	0.2 (4.4)	0.2 (29.5)	0.2 (Δ17.5)	0.2 (20.3)	0.3 (15.7)	0.3 (Δ12.3)	0.3 (8.4)	0.3 (8.5)	0.3 (14.0)
TV 부분품	3.8 (Δ7.2)	4.5 (1.6)	4.0 (11.1)	3.7 (123.2)	4.2 (175.5)	4.6 (96.7)	4.6 (61.6)	5.7 (54.2)	6.0 (47.8)	5.7 (84.9)	5.5 (65.2)	6.1 (64.1)	6.2 (63.7)

(0.9억 달러, 86.3%) 등의 성장세 지속으로 2개월 연속 60억 달러 대 수출되었다. 반면, 휴대폰(4.5억 달러, Δ43.4%)은 생산 거점 안정화와 부품 현지화 전략으로 부분품(4.4억 달러, Δ36.8%)이 수출 감소를 주도하였다.

미국으로 14.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3.0% 증가하였다.

반도체(3.4억 달러, 47.4% 증가), 패널(0.6억 달러, 0.4% 증가) 등의 부품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셋탑박스(0.2억 달러, 126.3% 증가), TV(0.2억 달러, 38.3% 증가) 등 영상기기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휴대폰(6.4억 달러, Δ5.7%)은 일반 폰 수출 부진으로 감소되었다.

EU로 17.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0.5% 증가하였다. 반도체(3.4억 달러, 89.7% 증가), 패널(6.5억 달러, 54.1% 증가), TV부분품(1.9억 달러, 44.4% 증가)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IT 부(분) 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휴대폰(2.6억 달러, Δ13.0%)은 부진하였다.

일본으로 6.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8% 증가하였다. 반도체(3.4억 달러, 26.0% 증가)와 패널(0.9억 달러, 16.1% 증가) 등 전자부품이 對일본 수출을 견인하였다. 중남미(6.7억 달러, 5.0% 증가), 동유럽(11.3억 달러, 51.6% 증가), 중동(2.8억 달러, 21.1% 증가) 등 신흥시장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였다.

